

국어 쉽고 수학 어려워... 체감난이도 ↑ '불수능' 예고?

'2020대입' 올해 첫 모의평가

국어, 정형화된 유형으로 출제 EBS반영 비율 높아 풀기 수월 수학, 중위권 체감난이도 높아 최상위권 킬러문항 다소 쉬워



4일 서울 마포 상암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수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6월 모의고사가 4일 전국에서 치러졌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3 수험생은 크게 줄고 졸업생 응시자가 늘어 재수생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특히 어려웠던 국어영역은 전년보다는 쉽게, 수학영역은 중위권 수험생들 위주로 까다롭게 출제된 것으로 추정됐다.

◆6월모평 국어 '전년 수능보다 쉽게'

국어영역은 지난해 어려웠던 것과 비교해서는 다소 쉽게 출제됐다. 하지만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쉽지는 않았다. 독서 파트 '공생 발생설'과 관련한 과학 지문(37~42번)이 상대적으로 어려웠고, 30번 문항의 경우 경제 영역에 지식 없는 학생에게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문학 산문 영역에서 출제된 고전 소설 '조운전'의 경우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 소설 읽기에 부담이 있는 학

생에게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고, 잔치 참석자들의 심리 파악을 요하는 25번 문항도 까다로웠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화법과 작문, 문법이 대체적으로 쉽게 출제됐다. 문항도 EBS에 수록된 작품이 다수 나와 낯설게 느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능 국어의 '만유인력의 법칙' 관련 과학지문(31번) 문항처럼 극단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이번 모의평가 국어영역 난이도와 관련해, 국어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 수능(150점)이나 전년 6월 모의고사(140점)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국어과 장석우 강사는 "EBS 체감 연계가 높아 지문 자체가 생소하지 않았고, 독서 지문 자체 독해가 비교적 용이했다"며 "앞부분에 배치된 화법과작문이 쉽게 출제돼 수험생들은 시험시작부터 큰 혼란없이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남윤근 소장은 "작년 수능보다는 쉽게, 작년 6월 모의평가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고, 15번, 30번, 41번이 등급을 가르는 문항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도의 문제 유형보다는 정형화된 문제 유형으로 출제됐고 EBS 반영 비율도 높아 어렵지 않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학 '중위권 수험생들 어려웠을 것' 수학의 경우 전년 수준으로 다소 까다롭게 출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학 가형은 전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학 나형은 전년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과 함께, 수학 가형은 중위권 수험생에게 어려웠고, 수학 나형은 지난해 수능처럼 어려웠다는 분석이 함께 나왔다. 전체적으로 중위권 수험생들에게 까다로웠다는 분석이 많다. 진학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수학 가형은 2점 문항과 3점 문항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됐으며, 문제 유형 또한 기존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 접할 수 있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공부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벡터와 확률과 통계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간이 걸렸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도 2~3문항 정도 출제돼 이 문항에서 실수를 한 학생들도 다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수학 가형의 중간난이도 문제가 전년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봤다. 최상위권 킬러 문항은 전년에 비해 다소 쉽게 출제됨에 따라 최상위권과 중위권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 차가 전년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학 나형의 경우 진학사의 경우, 전년 수능과 비교해 평이한 난도의 문제들이 상당 수 출제됐고 문제 유형 역시 한두 문항을 제외하고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고난도 문항 역시 상대적으로 다소 쉽게 출제됐다. 다만 중위권 학생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 당황한 학생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학영역 킬러문항으로는 수학 가형에서는 29번, 30번이 꼽혔고, 수학 나형에서는 21번, 30번이 지목됐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수학 나형에 대해 어렵게 출제됐던 전년도 수능 만큼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킬러문항은 전년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지만, 중간난이도 문제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했다. 킬러 문항으로는 21번, 29번, 30번으로 꼽혔고, 19번과 20번도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오뚜기,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마케팅·IT·경영전략 부문 등

주식회사 오뚜기가 2019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6월12일까지며, 오뚜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채용부서는 Sales, 생산기술, QC, CS, R&D, 마케팅, 패키지디자인, IT, 구매, 경영전략, 총무, 재경이며 지원대

상은 4년제 대학교(대학원)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이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온·오프라인),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온라인), 1차 실무면접 및 심층인성검사, 2차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2019년 7월 중 최종 입사하게 된다. 각 전형별 자세한 일정은 오뚜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경희대 오늘 '클리마투스 컬리지' 특강

경희대학교와 기후변화센터가 세계 환경의 날과 경희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5일 오후 3시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 B117호에서 클리마투스 컬리지(Climatus College) 6번째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주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강연자는 안영인 SBS 선임기자다. 안 기자는 SBS 기상 전문기자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제에 집중해 왔다.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이해해 기후환경 감수성을 회복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한용수 기자

강남대 재학생 '청사진 아이디어톤 대회'서 대상

강남대학교는 재학생들이 지난 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청사진 아이디어톤'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아주대학교가 주최하고 청사진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대학교 중앙동아리 소속 코아시스 학생들(강인영, 신준수, 이영섭, 이형근)은 이번 대회에서 본행사 팀빌딩 정책으로 김슬미(경희대), 이유호(경남대) 학생과 함께 '사소담'이라는 사진에 음성 녹음 기능을 탑재해 시각장애인들의 모바일 사진 기능 접근성을 높여주는 아이디어 어플을 제안해 ICT부분 대상을 받았다. /한용수 기자

연세대 경영대, 글로벌 랭킹서 '두각'

(FT선정 위탁경영자과정)

경영대학원 부속 상남경영원 위탁 경영자과정서 '세계 70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파이낸셜타임즈(이하 FT)가 선정하는 '2019 위탁 경영자과정 랭킹'에 진입해 세계 70위를 차지했다. 4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번 랭킹에 포함된 교육과정은 2018년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속 상남경영원이 운영했던 위탁과정으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참여 기업은 IBK기업은행, 신세계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삼성전자, 현대건설, LF, GS, BGF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두루 참여한다. 기업별 수시로 임직원 대상 과정이 운영된다. FT 랭킹의 평가 기준은 프로그램 구성, 강의교재, 교수진, 교육생 수준, 새로운 기술과 학습효과, 교육 프로그램 사후관리(follow-up), 교육시설 등으로, 특히 졸업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속 상남경영원 전경 /연세대학교

반영된다. 이 중 상남경영원은 프로그램 사후관리(follow-up) 평가에서 세계 37위에 올랐다.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에도 기업들의 요청사항들을 꾸준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상남경영원 이호근 원장은 "상남경영원이 기업 문화 및 특성에 최적화시킨 맞춤형 위탁교육과정을 꾸준히 개발해 왔던 덕분에 FT 랭킹 진입이라는 성

과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경영대학 서길수 학장은 "상남경영원의 비하위 프로그램인 위탁 경영자과정이 올해로 4년 연속 세계 랭킹에 진입함으로써 연세경영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경영학 교육 선도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중소 신입 10명 중 5명, 3개월 내 사표 낸다

신입사원 평균 조기퇴사율 37.2%

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10명 중 약 4명은 조기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낮은 연봉과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가 주요 퇴사 이유다. 4일 잡코리아가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한 국내 중소기업 678개사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5.1%가 채용했던 신입사원 중 퇴사한 직원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들의 신입사원 평균 퇴사율은 37.2%로 집계됐다. 퇴사 시기는 입사 후를 기준으로 '1~3개월 이내'(47.5%)가 가장 많았으며, '4~6개월 이내'(27.4%), '1개월 미만'(12.1%), '7~9개월 이내'(6.8%), '10~

12개월 이내'(6.2%) 순이었다. 퇴사 이유(복수응답)로는 '연봉이 낮아서'(44.2%) 퇴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32.4%) 퇴사한 비율도 높았다. 이어 '실제 업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서'(26.5%), '조직 적응에 어려움을 느껴서'(19.2%), '상사 및 동료와의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17.0%), '기업 문화가 맞지 않아서'(14.9%) 등의 사유가 있었다. /한용수 기자